

“호남 대변 창구... 인사·예산 외면땀 싸울 것”

이정현 새누리 최고위원으로 금의환향

새누리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 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26년 만에 광주, 전남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석은 당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은 전적으로 대표의 권한. 그러나 주변의 반대로 김 대표는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 ‘김무성 계보’로 알려진 주영순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고민은 깊어졌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결국 순리대로 ‘선거 혁명’을 이룬 이 의원을 지명했다. 이는 호남에 대한 애정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을 포용해야 한다는 중용의 도를 생각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주변의 전언이다. 이 의원을 당선시킨 호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파를 초월한 인사의 중요성을 깊게 생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지도부에서 당청 간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을 대표하는 목소리도 함께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측근 중에도 최고로 꼽히는 만큼 지도부가 박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꼬박 일주일 간 지역 인사 후견을 맡아 서울에 들어왔다. 그동안 그는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3시40분에 일어나 큰 마을 단위로 대중목욕탕, 택시 기사 등을 방문,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직전인 만큼 지역구인 순천·곡성 예산 관련 사업 현장을 공무원들과 둘러보며 예산을 타오기 위해 전략을 그렸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에 지명됐지만

월~목 최고위 충실히 참여 금~일요일엔 지역구 활동

김무성 대표 ‘친박 포용’ 호남 향한 애정 반영한 듯

오후 늦게야 당사에 들러 인사를 했다. 앞서 이날도 호남 예산을 챙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행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정서를 새누리당 안에 대변하는 창구, 통로 역할을 주저 없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할 것”이며 “월·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는 충실히 참석하고 가급적 박지원 의원처럼 금~일요일은 지역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기업 인사에서 호남에 편파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 “제 보좌진 총동원해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밝혀지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 속원사업이 이유없이 밀리면 제가 발굴해서 문 제제거하고, 이를 외면하면 역시 싸울 것”이라며 “제 지역구 관리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이 국민통합과 화합 첫걸음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국가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선진국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하게 (현행) 법률을 보지 않았다”면서도 “(취업이나 인사에) 종교, 이념 따지지 않는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지역도 집어넣도록 법도 개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당 사무총장에 3선의 이근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제1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변인에는 친이계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 TK(대구경북)으로 대구 북갑이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임명됐고, 박대출 대변인은 유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 뒤 처음으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심점 잃은 호남정치 새 시대 열 리더십 절실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4부> 지역인재를 키우자

- ① 브레인이 없다
- ② 교육 네트워크가 답이다
- ③ 포스트 DJ 키워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호남 민심은 포스트 DJ 시대를 기다려 왔다.

호남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시대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해 온 것이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은 과거와 같은 치열함을 보이지 못하면서 포스트 DJ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호남 정권 탄생과 민주화의 성취,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 지방자치제 정착 등 다양한 정치적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DJ와 같이 민주화와 정권 교체 등 정치적·시대적 가치 제시를 통해 호남 민심을 결집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적 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이 실종되면서 호남 정치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에 골몰, 정치적 역량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공천이라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계파 정치의 출타기를 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계파 하청 정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호남 정치권의 현주소다.

DJ 이후,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위해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치 문화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호남의 상생이라는 화두는 정치적

생존이라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호남 정치권의 위상 침체와 호남의 역량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DJ 이후, 호남은 정치적 상수가 아닌 정치적 변수로 전락한지 오래며 ‘야권의 심장’이라는 평가 등은 정치적 뒷발에 부여된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무리한 전략공천을 강행한 배경에는 이 같은 현실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7·30 재보선 참패로 맞은 야권의 위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호남 정치권에 포스트 DJ 시대를 열어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다.

호남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계파를 넘어 호남의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 전북 정치권이 우선 호남 상생을 위한 ‘소통의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기적인 회동으로 호남의 현안과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며 호남 상생이라는 화두의 구체화를 통해 호남 정치권의 역량 강화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상생이라는 화두를 통해 정치적 미래 가치를 선점하고 밀고 끌어주는 정치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포스트 DJ 시대를 열어가 수 있는 인물과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DJ 이후, 정치적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역 중진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번의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하면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과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호남 상생은 필요가 아닌 사실상 필수 조건이며 이를 통한 호남의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선 6기 출범 한 달여만에... 광주시 ‘정무 라인’ 구축 돌입

광주시가 민선 6기 출범 후 한 달이 넘도록 공석인 경제부시장과 정무(시민)특보를 공개모집하는 등 ‘정무 라인’ 구축에 들어갔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를 통해 공석인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뒤, 5일자로 경제부시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또 같은 날 투자유치서술사무소와 시민협력관실 소속 대외협력관 등 일반직급제 사무관 2명의 공고도 냈다.

개방형 경제부시장 공모 공고

대외협력관 2명도

정무특보 장현 교수 유력

경제부시장 채용직급은 지방별정 1급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개방형 1호)이다. 임기는 2년이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부시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됨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유능한 인재 유치의 폭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기획재정부 소속 간부가 “조만간 있을 부처인사 이후 경제부시장으로 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제부시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 것은 현직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포함한 광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 투자유치서술사무소와 정무(시민)특보를 맡게 될 대외협력관 2명도 공고를 내지마자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시정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언론, 시의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가고 역할을 해야 할 정무특보로는 장현(58)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때 윤장현 광주시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세월오월’ 비엔날레 전시 여부 재단에 일임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프로젝트 중 홍성담 작가 등이 제작하고 있는 ‘세월오월’의 전시여부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전문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출장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날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프로젝트 중 홍성담 작가 등이 제작하고 있는 ‘세월오월’의 전시여부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전문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



2014년 Summer Special

그린피 할인 Event

8월 1일(금) ▶ 8월 31일(일)

특별할인				(단위: 원)			
구분	T/O 시간	월~금	토~일(공휴일)	구분	요일	선호시간	비선호시간
18홀 기준	07:00~07:56	63,000	133,000	1박 2일 (36홀+조식+골프텔)	월~금	176,000	156,000
	08:03~09:00	73,000			금~토	236,000	226,000
	12:20~13:44	93,000			토~일	276,000	266,000
	13:51~14:30	83,000			일~월	216,000	206,000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않으며, 카트비 별도금액입니다. *1박2일 패키지 요금은 4인 기준 36홀 원로기준입니다. *1인 무료 라운드상품권은 당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요금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할인					
내용	대상	기간/해당요일	그린피 할인 등	비고	
사이버회원 추가할인	신규가입자 및 기존회원	2014. 7. 7일~9. 30일	추가 10,000원 할인	주중, 주말 모두적용	
Lady Day	여성고객 전원	매주 월요일	그린피 63,000원 적용		
그랜드 시니어 할인	만 60세 이상 고객 전원	월~금(공휴일 제외)	추가 10,000원 할인	프린트 산본증 제시	

*남성 복장은 무릎 위 반바지는 착용할 수 없으며 7부 반바지는 허용됩니다. *위 공히 카트비는 별도이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함평다이내스티컨트리클럽

DYNASTY 061.320-7700/7777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서암매길 242